

무의도 여행 2 - 펜션에서

김창수(시인)

숯불이 타는 동안
저 멀리 있던 밤바다가
방둑을 넘어 슬며시
우리 곁에 와 앉았다.

저녁 식탁 위엔 바다가 가져다 준
무의도의 사연들이 하나, 둘 차려지고.
촌로의 자식 그리움이
알맞게 익어갈 때 짬
밤벌들도 내려와 어둠을 밝혀 주었다.

아무도 기억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던
버려진 섬 실미도를 등에 업고
거센 해풍을 맞으며 시퍼런 세월을
숨죽여 살아 왔다는
무의도 사랑 이야기에
밤벌레도 징징 울어대는 밤,

숯불이 사그라들고
어느새 까맣게 재가 된 가슴은
천국의 계단이 바라보이는
하나개 해수욕장 모래무지 위에서
바람 가득한 새벽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여행을 떠나오기 전만하여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전체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잊지 못했다. 한 단체에 소속된 조연에 불과했던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무엇 하나 나와 무관한 것이 없다.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낭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처음 마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이곳에서 주인공이 되어간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나를 보는 기회다. 나를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났다. 화자는 주위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한걸 넓어진 시야를 확인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지낸 보름

이 숙 진(수필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이 되었다. 그를 구성하는 문화적 코드는 마라톤, 여행, 독서, 고양이, 그리고 재즈다. 작가 하루키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공간적인 장소나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신의 문학적 근원을 향해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하루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걸어가는 우리 시대의 건강한 작가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는 한 번에 책을 여섯 권까지 빌릴 수 있다. 마침 며칠간 약속이 없는 틈을 타 도서관을 찾아 몽땅 하루키의 에세이집을 빌려왔다. 반납 기간까지 보름이라 여섯 권을 다 정독하기에는 날짜가 더금더금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다섯 권을 빌렸다.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을 첫 번째로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교보 문고에 나가서 사 오기도 했다.

에세이집은 거의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했던 글들이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1994년 봄부터 1995년 가을에 걸쳐 [SINRA] 라는 예쁜 잡지에 다달이 연재했던 글이다.

「벨런타인데이의 무말랭이」는 [일간 아르바이트 뉴스]에 일 년 구 개월에 걸쳐 연재했던 칼럼을 묶어놓은 것이다. 벨런타인데이에 초콜릿 하나 못 받아서 무말랭이 조림을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언제나 젊고 지칠 줄 모르는 하루키 일상이다. 고양이와 마라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 그것은 글쓰기의 틈새에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하루키만의 여백의 삶이다.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는 잡지 [앙앙 Anan]의 연재 에세이 ‘무라카미 라디오’에 쓴 글이다. 일 년 동안 연재한 약 오십 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이 탄생한 것이다. 특별한 수사법(Rhetoric)이 없어도 살갑게 다가오는 그의 일상을 내비침이 매력적이다.

「하루키 씨를 조심하세요」라는 책은 우치타 타츠루 씨가 십 년이나 넘게 매체에 하루키에 대한 에세이를 쓴 글을 모은 것이다.

하루키는 몸이 건강치 못하면 글의 호흡이 짧아진다고 한다. 신체가 건강해야 글의 호흡이 길어진다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보통 새벽 6시에 기상하여 글을 쓰다가 간단히 아침을 먹고 10시까지 글을 쓰고, 낮에는 수영과 달리기를 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고백한다. 저녁에는 소설을 쓰지 않고 독서나 에세이를 쓴다는 원칙을 세워서 꼭 시간을 지킨다고 한다.

나는 아침 7시만 되면 윗집에서 봄~ 봄~ 하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깨며 혀를 찼었는데, 이젠 그 알람에 맞춰서 7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가. 내가 알람을 급히 제지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들리는 자동 머신이니 금상첨화다. 모든 일이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니 마음에 새길 일이다.

하루키는 소설 쓰는 작업을 ‘굴을 판다. 지하로 내려간다.’에 비유했다. 이것은 곧 그에게 글쓰기 행위는 그러한 신체적 실감을 생생하게 동반한다는 뜻이다. 꿈을 꾸기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뜬다고 하는 하루키의 서사에선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에 대해 사랑을 배운다. 이는 하루키 문학의 거의 모든 작품에 걸쳐 공통으로 나타나는 설화구조라 할 수도 있다.

「하루키 씨를 조심하세요」를 옮긴 김경원 씨는 이렇게 썼다. ‘이 책은 하루키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던져 준다. 내 생각이 얕았다! 내 경험이 짧았다! 내 앞이 텅없이 부족했다! 내 세계가 좁았다!’ 하는 깨달음을 줌으로 읽어 준다고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을 쓸 때 작가와 독자 둘만의 관계로 보지 않고 삼자의 관계로 놓고 본다. 그 하나가 바로 ‘장어’다. 그가 원체 장어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고 편한 상대를 택하고 싶은 의지였을 거다. 뭐 그리 엄청난 것도 아니고 장어와 대화하며 한 박자 쉬고 객관적 시각을 모색하겠다는데 그 누가 탄죽을 걸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작고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독자와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단한 모티브나 메타포를 기대했던 내가 헛웃음 뒤에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다.

나는 그의 용기를 닮고 싶다. 학생 신분으로 결혼하는 용기다. 경제적 자립이 안 되어 처가에 들어가서 살 때, 부부가 아르바이트해서 재즈 카페를 차리는 용기. 미국이든 일본이든 장소나 나이 관계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풀코스를 뛰는 용기. 극단적 중국요리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중국 오지까지 취재 여행을 2주간이나 가는 용기, 아내를 귀국시키고 사진작가 친구와 둘이서 아메리카 대륙횡단을 감행하는 용기. 등등 그의 무수한 용기가 닮고 싶다. 빛나는 하루키식 에스프리를 닮고 싶다. 냉철한 직관력의 하루키를 통해 일상 속에서 반짝이는 삶의 미학을 건져 올리고 싶다.

보름 동안 하루키와 보낸 시간이 아깝지 않다. 다시 하루키 에세이집을 네 권 빌려왔다. 벌써 기대에 차서 숨 쉬는 시간도 아까울 지경이다.